

투쟁속보

전국언론노동조합
NATIONAL UNION OF MEDIA WORKERS
인천일보 지부
www.incheonnojo.org

2004년 4월 1일

| 발행인 정찬흥 | 편집인 김진국 · 편집위원 김형태 정인숙 노형래 | 전국언론노동조합 인천일보지부 | 인천시 중구 항동4가 18-2 (전화:4520-282 팩스:763-8807) |



이젠 사생결단이다! 전 경영진 경영권찬탈음모 노골화에 전 직원 '분노'

인천일보의 사활이 걸린 '감자' 결의가 전 경영진의 경영권 찬탈 음모로 유보됐다.

인천일보는 지난 31일 오후 3시 본사 4층 회의실에서 '제24기 주주총회'를 갖고, 결산승인과 감자결의 등 지난 이사회에서 결정한 4가지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51%의 주식지분을 확보, 주총에 참석한 신화수 전 사장과 장재춘 회장 측의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결산승인 등 2건의 안건만 처리했을 뿐, 가장 중요한 감자 결의는 처리하지 못했다.

특히 경영진을 대신해 주총에 참석한 전 기획관리본부장 등은 징계 중인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 오히려 신 사장이 떠난 후 인천일보를 이끌어 온 비대위가 모든 책임의 근원인양 지적하고 나서 주주총회장의 분위기를 흐리기까지 했다.

이날 주총은 영업·감사 보고 때까지만 해도 무리없이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결산보고 등 이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때부터 파행의 조짐을 보였다.

의사진행발언을 얻은 전 경영진 측은 '감자 결의'와 '임원 승인' 안건을 함께 처리하지는 상식 밖의 제안을 했고, 이에 나머지 주주들은 '말도 안되는 일'로 일축하며 반발했다.

당초 신 사장과 장 회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는 이날 주총에서 결산 보고·승인과 감자결의, 임원승인 등의 순으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었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안중에 두지 않은 채 전 경영진 측은 경영권 찬탈을 위해, 감자결의란 당근을 제시하며 임원승인 건을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전 경영진 측은 "직원들이 원하는 감자를 결의해 주면, 그에 상응하

는 대주주의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헌 9명의 이사를 정관에 따라 15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식지분으로 전횡을 저지할 수 있는 주총과 달리, 대주주나 소액주주가 동등한 권리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는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럴 경우,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권한이 고스란히 전 경영진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이사회는 전 경영진에게 비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인천일보의 자본잠식 상태 등 경영책임을 강하게 질타해 왔다.

전 경영진 측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비상식적인 제안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지적하고 "특히 대주주인 장 회장과 신 사장이 대리인을 내세운 채 자신들은 주총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반발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산회를 요구했다.

이에 주총 의장을 맡은 황호수 일시대표이사가 산회를 선포했지만, 전 경영진 측은 30여분 뒤 미리 의사봉까지 준비(동구의회에서 빌린 것으로 밝혀짐)하는 치밀함을 보이며 51%의 주식지분으로 주총을 강행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을 비롯한 직원들의 강력한 저지로 전 경영진 측의 경영권 찬탈음모를 저지할 수 있었다.

언론노조 인천일보지부는 이날 주총 무산 이후 바로 성명을 내고 전 경영진 측의 경영권 찬탈 음모를 강력히 비난했다.

인천일보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전 경영진이 인천일보 임직원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감자'를 미끼로 경영권 장악에 나선 것"으로 규정하고, "반개혁적이고 부정부패를 키우는 수구보수언론을 만들겠다는 전 경영진의 음모에 맞서 '생즉사 사즉생'의 싸움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전화위복을 기뻐하자

31일 주주총회 결과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역시'로 꺾어놓은 '이미 예상했던' 바였다. 그러나 막상 닥치고 보니 많은 조합원들이 실망을 넘어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조합원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 하며 그들의 상식밖의 행동에 부들부들 떨고 있다.

우리 노조는 그동안 안기부 출신인 신화수와 건설업자인 장재춘에게 인간의 도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주주총회 결과를 조심스레 지켜보았다.

지역을 끌어가는 주주들도 지켜봤던 이날 회의에서 신화수와 장재춘은 '공작'과 '권모술수'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한 때 우리와 함께 한술밥을 먹으며 동고동락했던 동료이자 선배이자 또 후배인 두 명을 꼭두각시로 내세워 경영권을 재장악하려고 했던 음모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신화수 장재춘에게 매수당한 그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을 그렇듯 황폐하고 초라하게 만든, 그들을 아예 지역사회에서 생매장 되도록 조종한 신, 장 두 사람의 음모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

장재춘은 인천일보 재임기간 인천일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바람막이로 사용하려 했다. 직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그것이 여의치 않자 자신과 친분이 있던 안기부 출신 신화수와 모의해 그를 경영진으로 심어놓고 뒷선으로 물러앉았다. 그런 와중에서도 인천일보 대주주라는 신분을 이용해 끊임없이 신문사를 개인 소유물처럼 이용했고 우리 노조는 그 증거를 갖고 있다.

우린 눈물을 머금고 이제 이런 증거자료를 세상에 낱알히 고발하려 한다. 눈물을 머금어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를 알게 모르게 방치했던 우리 조합원들의 반성도 함께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인천일보가 진정한 시민의 신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이고 노조는 오래전부터 시기만을 기다려 왔다.

지금이 아니면 인천일보 개혁은 요원하다. 한 개인의 권력을 위해, 한 개인의 명예를 위해, 한 개인의 돈을 위해 존재하는 신문을 봐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천일보는 인천시민들의, 또 경기도민들의 신문이지 신화수나 장재춘의 사유물이 결코 아닌 것이다. 지금까지 인천일보의 발전이 더디었던 것은 그들이 신문을 마치 자신들의 사유물로 사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 인천일보는 개혁을 향한 열정이 불처럼 타 오르는 상황이다. 수구보수, 족벌 재벌 언론인 조중동처럼 되지 않기 위해 조합원을 비롯한 전 직원이 똘똘 뭉쳐있는 상황인 것이다.

신화수와 장재춘은 평생 후회하고도 남을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다. 그들의 악행은 인천일보만 하나의 신문사를 퇴보시키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에,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 우린 똑똑히 보았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주총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다른 주주들을... 그들은 지역의 공분을 사고 만 것이다.

인천일보 전 조합원의 우리 일터와 가정을 지키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며, 참되고 바른 소식만을 전하는 '참언론'을 향한 의지는 무쇠도 뚫을만큼 강력하고 뜨겁다.

이번 주주총회의 무산은 장기적인 인천일보 발전을 위해 차라리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열린소리 3월호에서 이미 밝혔듯이 우린 예상했던 결과를 맞은 우리는 이제 개혁 프로그램을 더욱 강력히 진행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맞아 기쁜 것은 동지들의 사랑과 단합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우리 노조는 주주총회의 무산을 예상하고 미리 철야 농성을 시작했으며, 농성을 통해 전 조합원이 동지임을 확인했다. 이것은 주총날에 확실히 증명됐다. 주주총회 때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총장을 지키던 우리 조합원을 비롯한 전 직원의 눈빛은 인천일보 개혁을 향한 강철같은 의지의 단면이었다.

주총의 무산은 우리의 단합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줬다. 동지들이여, 어차피 거쳐야 할 지금의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인식하자. 비온 뒤 땅이 더 굳는 법이 아닌가. 경영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직원들의 분골쇄신으로 과거보다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는가.

저들은 지금도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있겠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수밖에 없다. 개혁의지에 분노가 결합한다면 그 힘은 두 배, 세 배로 커지는 법이다.

동지들이여! 자, 다시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하고 힘찬 투쟁의 깃발을 휘날리자!